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경북대학교 아주대학교 신라대학교

본 연구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SI : ambivalent sexism scale, Glick & Fiske, 1996)를 우리 문화에 보다 적합한 척도로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비조사에서 1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기술응답과 기존 척도의 문항변안을 통하여 157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조사(연구1-5)에서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을 포함한 다양한 표본에서 총 3491명을 대상으로 얻은 자료를 통해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1, 2, 3의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HS) 18문항, 온정적 성차별주의(BS) 문항 18문항으로 구성된 총 36개의 최종 문항이 선정되었다. 구성타당화 연구(연구2, 3)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HS와 BS의 두개의 주요인과 각기 3개의 하위요인을 지닌 모델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4에서 기존의 성차별주의 척도들과 관계를 검토한 결과, 기존척도들과 수렴타당도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임을 나타내 주는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전국단위의 표본 조사인 연구5에서, HS와 BS간의 상관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남녀, 지역, 연령 등의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 HS와 BS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영남지역과 30대 이후 조사대상자들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들 결과에 대한 의미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어 : 양가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 편견, 고정관념, 타당도, 여성

여성들이 처한 불평등적 요소가 오늘날까지도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데에는 사회구조적으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 오고 있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편견의 영향이 크다. 많은 관련 연구자들은 여성을 비롯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부정적 고정관념의 그릇된 일반화에 근거한 적대감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있다(예; Allport,

1954). 편견이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에 근거한다는 입장은 심리학 분야에서 표준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졌다. 편견이 곧 적대감이라는 인식은 인종차별주의(racism)에 대한 연구에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인 성차별주의(sexism)에 관한 연구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편견을 적대감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안상수는 경북대학교, 김혜숙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안미영은 신라대학교에 소속하고 있음.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연구지원(KRF-2003-074-HS0009)으로 이루어진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심리과정 :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우호적 성차별주의” 연구 중 하나입니다.

교신저자 : 안상수,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53)950-5244,

E-mail : assoo1@naver.com

것은 성차별주의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Fiske, Xu, Cuddy, & Glick, 1999; Jackman, 1994).

Glick과 Fiske(1996)는 인종차별주의가 통상적으로 사회적 거리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같은 적대적 편견으로 나타난다고 볼 때,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는 인종차별주의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성차별주의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감이라기보다는 질시와 애정이 뒤섞인 양가적인 속성을 띤다는 것이다. 여성은 과거나 현재 모두 남성들에게 폄하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와 흠모의 대상이기도 하였다(Eagly & Mladinic, 1993; Guttentag & Secord, 1983; Tavris & Wade, 1984). 이와 같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적대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온정적 태도를 동시에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온정적 태도 역시 사회구조적으로 열등한 여성의 지위를 고착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편견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관한 기존 이론들이 편견을 적대감이라는 단일 차원으로 가정해 왔던 것과는 달리, 여성에 대한 편견은 적대감과 온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양가적 특성을 지닌다는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의 주장은 성 편견 연구에서 비교적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Abrams, Vicki, & Masser, 2003; Masser & Abrams, 1999; Brannon, 2005; MacDonald & Zanna, 1998). 특히 오늘날의 성차별주의의 양상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던 과거에 비해서 보다 은밀하고 간접적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 편견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는 Glick과 Fiske(1996)의 척도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우리 문화에 맞게 개발하고 타당화

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성 편견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구분되어 나타나는지, 양가성의 본질이 서구와 유사한 요인구조를 갖는지, 기존의 성차별주의 척도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남녀, 연령 및 지역 간의 비교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

Glick과 Fiske(1996, 2001)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에 따르면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S : 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S : benevolent sexism)의 두 가지 태도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라는 것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HS)는 지금까지의 인종차별주의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영역을 침범하는데 대한 적대적 감정(antipathy)이라 할 수 있고,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전통적인 역할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호의적 감정(favorable)이라 할 수 있다.

Glick과 Fiske(1996)는 성차별주의가 강한 양면성을 지닌 독특한 종류의 편견이라고 가정한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여성이 남성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려 든다거나 남성에게 비합리적 요구를 한다는 인식에 따른 부정적 태도로서 적대적 성차별주의(HS)를 보이는 한편, 여성들과 이성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의존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보호적 관심과 보완적인 성역할 기대, 친밀감 등으로 이루어진 온정적 성차별주의(BS)를 함께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HS)가 기존의 남성위주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비전통적 여성들에 대한 처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면,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여성을 우대하는 태도인 듯이 보이지만, 실상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로서 전통적 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에 대해 보상을 주고 칭찬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지배의 권력구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HS)는 여성이 여권운동이나 성적 매력을 이용해서 기존 남성의 지위와 권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가진 남성은, 여성이 주도적 과제(agentive tasks)를 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중요

한 지위에 부적합하다는 신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이 기존 이론들과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 차이가 온정적 성차별주의(BS)를 가정한다는 것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여성을 보호와 호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며 남성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과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지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근거한 고정관념적인 시각으로 여성을 평가하며 가사일과 같은 제한된 역할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별적이지만, 주관적으로 그런 여성에게 느끼는 감정은 긍정적이며 여성을 돕거나 친밀성을 추구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기 쉽다.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에도 불구하고 온정적 성차별주의 역시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여성의 저항을 누그러뜨림으로써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보완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결국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부양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지배논리를 은연중에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근원

Glick과 Fiske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이론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HS)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공통된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부성주의(paternalism),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 및 이성애(heterosexuality). 이들 세 가지 구성요소는 적대적인 감정과 온정적 감정의 두 가지 양상을 동시에 내포하는 양가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들 각 요소는 남녀관계를 특징지을 수 있는 사회구조적 지위와 생리적 차이를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부성주의(paternalism)는 아버지가 자녀를 다루듯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성차별주의가 애정과 보호를 의미하는 보호적 부성주의(protect paternalism)와 지배와 종속을 의미하는 지배적 부성주의(dominant paternalism)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가적 속성을 가진다. 지배적 부성주의는 '여성은 남성만큼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

이 마땅하다'는 태도로서 가부장적 사회제도를 정당화하고 우월한 남성상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보호적 부성주의는 남성은 출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내, 어머니, 사랑의 대상으로서 여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성은 연약한 여성을 보살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통해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는 남성의 역할과 신체적 특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담당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논리로서 남녀의 지위의 차이를 정당화하고 남성이 경쟁적 성역할 분화(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를 통해 여성을 하향비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기능을 한다. 성역할 분화는 마찬가지로 온정적 성차별주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존성은 여성을 남성에 대한 상보적인 긍정적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보도록 하였다(Eagly & Mladinic, 1993). 예컨대 '남성은 바깥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안 일을 한다.', '여성은 양육과 가사 일을 돌보는 데 더 적합하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남성에게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 보완적인 여성의 특성을 고정관념적으로 귀인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보완적 성역할 분화(complementary gender differentiation)를 통해 '남자는 여자 없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성애(heterosexuality)는 남성이 여성에 느끼는 가장 두드러진 양가감정의 원천이다. 남성이나 여성에게 모두 이성애적 사랑은 삶에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Berscheid & Peplau, 1983).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이성애는 여성을 심리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친숙한 관계로 여겨지도록 한다(heterosexual intimacy). 이러한 이성애적 친밀성은 '모든 남성은 반드시 흠모하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와 같이 남녀관계를 낭만적이고 친밀한 관계로만 규정함으로써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애적 관계가 행복감과 친밀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남성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Kilianski, 2003, Begany & Milburn, 2002). 특히 남녀 관계에서 성은 여성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권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성에 있어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의존성은 지위가 높은 집단성원이 종속집단의 성원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관계는 ‘여성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 성적 유혹을 사용한다.’는 반감에 바탕을 둔 적대적 이성애(heterosexual hostility)를 초래할 수도 있다.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Glick과 Fiske(1996)가 개발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SI : Ambivalent Sexism Inventory)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2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남녀관계에서 ‘지배적 대 보호적 남성주의’와 ‘경쟁적 대 보완적 성역할 분화’, ‘적대적 대 친밀한 이성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 6가지 이론적 구성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적대적 성차별주의 척도 문항 11개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척도 문항 11개로 이루어진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Glick과 Fiske(1996)는 6개의 일련의 연구에서 대학생 표본과 일반인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의 가정과 일치하게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요인과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요인으로 두 개의 주 요인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두 개의 주 요인은 각각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적대적 성차별주의(HS)는 하나의 주 요인으로 묶였고 그리고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각각 보호적 남성주의, 보완적 성역할 분화, 친밀한 이성애의 3개 하위 요인들로 구분된 2차 요인구조를 갖는 4요인 모형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대적 성차별주의(HS)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6개 연구의 모든 표본들에서 정적인 상관관을 보였으며, 특히 일반인 표본에 비해 대학생 표본에서 더 큰 정적 상관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척도점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척도점수에서 남성이 모든 표본에서 여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척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ASI의 이러한 특성이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에서의 남녀 및 연령차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두 하위 척도인 적대적 성차

별주의(HS) 척도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에서 보고된 일관된 결과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낮다는 것이다(Glick & Fiske, 1996; Glick et al., 2000; Masser & Abrams, 1999). 이에 대한 Glick과 Fiske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지배적 남성주의와 친밀한 이성애에서 비롯되는 지배욕구와 성적 친밀욕구가 동기적 속성을 띄는 경향이 있으며,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지배적 욕구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친밀욕구와 반드시 결합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대해 지향된 동기에 따라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중 어느 하나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분화되기 때문에 HS와 BS간의 상관관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S와 BS간의 상관관이 높다는 것은 HS와 BS를 모두 수용하였거나 또는 모두 거부하였거나 하는 조건 중에 하나 일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동기적 지향에 따라 여성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이 되거나 온정적인 쪽으로 태도가 분화되어지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동기적인 속성을 갖기 보다는 그 사회나 문화에서 규정하는 여성에 관한 신념들에 순응하여 HS와 BS에 모두 동조하거나 이를 거부하여 HS와 BS에 모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Glick 등(2000)의 문화비교 연구에 따르면 높은 성차별주의적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HS와 BS의 점수가 더 분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 HS 점수가 낮은 지역들보다 높은 지역들에서 HS와 BS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의 성차별주의가 높은 문화권일수록 여성들은 HS보다는 BS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개국 남성의 HS와 BS간의 평균 상관관이 .23이었고, 여성의 경우 .37이었으나 우리나라의 남성은 .16이었으며 여성은 .32로 19개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키, 쿠바, 일본 등과 함께 여성의 HS와 BS간 상관관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차별주의 문화권에 속하고 있고, HS와 BS의 점수가 타 문화권에 비해 더 분화된 형태의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Jost와 Banaji(1994)의 체제정당화이론에 의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소수집단들이 다수 집단의 지배체제를 정당화 하려는 신념들에

순응하게 된 결과로, 다수 집단인 남성의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여성들은 남성의 체제 정당화 논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적대적 성차별주의(HS)를 정당화 하는 남성들의 논리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고, 대신에 온정적 성차별주의(BS)를 정당화 하는 남성들의 논리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그 사회의 성 편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HS에서 남녀간 평균차이는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BS에서의 남녀간 평균차이는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K-ASI에 대해서도 역시 여성의 HS와 BS간 상관의 남성보다 더 클 것이며, HS에서의 남녀 차이가 BS에서의 남녀간 차이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다.

Glick과 Fiske(1996)는 남성 표본에서 나타나는 HS와 BS간의 상관에 대한 연령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앞서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즉 나이 어린 남성의 경우 HS와 BS가 미분화되어 상관이 높을 것인 반면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해 여성에 대한 태도가 경험적으로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HS와 BS가 더 잘 분화되어 상관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Glick과 Fiske(1996)의 예언과 달리 Masser와 Abrams(1999)는 일반 직장인과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일반인 남성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남성들보다 더 높은 HS와 BS간의 상관을 얻었다. 이 결과에 대한 Masser와 Abrams(1999)의 대안적인 설명에 따르면, 어린 남성의 경우 그 사회에 보편적인 여성에 대한 적대적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을 먼저 형성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주의적 역할이나 남녀관계에서 경험도 증가하게 되어 나중에 온정적 편견과 긍정적 고정관념 요소를 통합하게 된 결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 일반인 남성이 더 높은 HS와 BS간의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SI의 타당화와 아울러 상관차이분석과 평균차이분석을 통해 성별이나 연령별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인 표본에서 HS와 BS간의 상관과 평균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SI)와 기존척도들과의 관계

현재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시대변화와 평등주의적

사회규범의 영향을 보다 잘 반영할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성차별주의 척도들이 개발되는 추세에 있다(김양희, 정경아, 2000). 지금까지 잘 알려진 성차별주의 척도로는 Attitudes Toward Women Scale(AWS : Spence & Helmreich, 1972), Old Fashioned Sexism Scale(OFS : Swim, Aikin, Hall, & Hunter, 1995), Modern Sexism Scale(MS : Swim et al., 1995), Neo-Sexism Scale(NEO : Tougas, Brown, Beaton, & Joly, 1995), Rape Myth Acceptance Scale(RMS : Burt, 1980) 등이 있다. 이들 기존 성차별주의 척도들은 여성의 권익과 역할에 대한 태도 혹은 성평등주의나 여성차별폐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confirmative action)와 같은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현대적 성차별주의 척도(MS : Swim et al., 1995)와 신 성차별주의 척도(NEO : Tougas et al., 1995)들은 간접적이고 은밀한 형태의 성 편견을 규명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존의 척도들은 편견이 단일차원, 즉 '편견이 곧 적대감이다'라는 가정 하에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편견이 적대적 구성요소와 온정적인 구성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SI)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Masser & Abrams, 1999). 이런 논리에 비추어보면 ASI의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척도는 이들 기존 척도들과 관련이 되겠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ASI만이 독특하게 측정하는 편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ASI와 MS, NEO간의 관계를 가정해 보면, MS가 차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NEO는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척도간의 차이가 있지만, MS와 NEO는 공통적으로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성차별주의를 측정하고 있다(Campbell, Schellenberg, & Senn, 1997). HS와 MS 및 NEO는 적대적 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겠지만 HS는 여성과의 경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이 깊고 MS와 NEO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적대감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보편적인 남녀관계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BS는 성차별주의의 주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독특하게 측정하기 때문에 MS 및 NEO와 상관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들 중 강간통념수용척도

(이석재, 1999)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성적 고정관념들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 정경아, 2000)는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성차별(성평등) 의식을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주로 적대감 차원의 기존 척도들을 참조한 것이라 점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K-ASI의 하위 척도인 HS와 BS에 대해서 이들 기존척도들과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구성

본 연구에서는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한국 문화에 맞도록 개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할 마땅한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남녀에 대한 태도는 특정 사회나 문화에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기초해야 하므로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김양희, 정경아, 2000)는 지적을 감안할 때 이 척도의 도입과 개발은 중요한 학문적 및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나타내는 문항들을 만들고(예비조사), 2) 이러한 문항들에 대한 문항분석과 요인분석(탐색적, 확인적)을 통하여 문항을 선정하고 척도의 하위 요인구조를 확인하며(연구1-3), 3)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통해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연구4). 그리고 4)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준거타당도(연구4-5) 및 남녀별, 지역별, 연령, 대상자별 평균차이(연구5)를 알아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조사와 5개의 다양한 표본을 포함시켜 자료를 분석하였다.

예비조사 : 문항수집 및 개발

예비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에서 제시한 각 하위 구성개념에 부합되는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문항수집과 제작에 있다. 이를 위해 예비조사는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우리 문화에서의 성편견의 양가적 속성을 보다 잘 반영한다는 목표로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22개 원문

항을 2명의 이중국어 사용자가 번안하였다. 둘째는 140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자유기술응답을 얻었다.

방 법

예비문항 수집 및 개발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에서 제안하는 구성개념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번안된 22개 원문항 및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존의 성차별 척도들을 참조하였다. 또한 우리 문화와 실정을 잘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 지방소재의 2개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의 6개 구성개념(지배적 남성주의, 경쟁적 성역할 분화, 적대적 이성애, 보호적 남성주의, 보완적 성역할 분화, 친밀한 이성애)에 관한 기술문을 제공하고, 이들 개념과 부합되는 단 문형식의 문장이나 사례를 가능한 한 많이 보고하게 하는 자유기술형식의 응답을 얻었다.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2명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상과 요즈음의 여성에 관한 반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도록 과제형식으로 부과하였다.

대상자

자유기술형식의 응답에 참여한 대상자는 아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었으며, 대학생은 아주대학교의 대학생이 41명이었고 대학원생이 9명이었으며, 경북대학교의 대학생이 85명이었고 대학원생이 5명으로 합계 140이었다. 그리고 과제형식의 면접에 응한 일반인(부모 및 조부모) 응답자는 모두 67명이었다.

결 과

자유기술형식의 응답 자료와 면접형식으로 보고된 응답 자료는 1차로 2명의 연구진이 내용분석을 통해 181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내용분석 시 고려된 기준은 응답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려는 목표와 특정문항이 갖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반응편향을 상쇄시키기 위해 표

현양식은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는 문항들을 포함시키려는 목표로 6개의 하위 구성요소별로 25-35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2차 검토에서는 1차 분류에서 추출된 181개의 문항 원집합에 대해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의 6개 구성개념을 숙지한 3명의 대학원생과 3명의 연구진이 내용분석을 통해 하위요인별로 범주화하였으며,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일치도가 낮지만 질문의 의미가 모호한 것들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의미를 갖도록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81개의 문항 원집합 중 문항의 적절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측정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19개의 문항이 제거되었고 157개의 예비문항이 선정되었다.

3차 검토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157개의 예비문항들에 대하여 6명의 연구진과 1명의 심리측정이론 전문가가 참여한 토의과정을 거쳐 토의과정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3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이어 4차 검토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11명의 남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질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문항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후속 타당화 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조사연구(연구1-연구5) : 문항분석 및 타당화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표집크기의 5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결과제시를 보다 단순화하고 연구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5개 연구별로 진술하기보다는 타당화의 목적에 따라 통합적으로 진술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5개 연구별로 각기 다른 5개의 표본을 구하였고, 결과분석은 타당화의 목적에 따라 기초적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평균 차이분석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의 5개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모두 3491명이었다. 표집절차는 연구1에서 연구4는 임의 표

집이었으나 연구5는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었고 전국단위의 다단계 층화무선 표집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는 자기 기입식과 면접방법을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며, 모두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5개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조사 응답에 대한 대가가 제공되었다. 조사기간은 2004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우선 각 연구별 조사 목적, 조사 문항 및 절차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1

연구1은 예비조사에서 추출된 157개 문항에 대한 문항 타당화와 기초적인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후보문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2개 대학의 207명의 대학생이 조사대상이었다. 이들은 아주대학교 대학생 97명과, 경북대학교 학생 110명이었다. 남자는 112명, 여자는 95명이었다. 연령분포는 18세에서 34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2세였다. 조사대상자에게는 이 연구가 남녀관계의식조사라는 명칭으로 “남녀관계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본다.”라는 목적이라고 하였으며, 집단으로 수업 시간에 자기 기입식 응답으로 실시되었다.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6)의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항분석결과, 17개의 문항이 탈락되고 140개의 후보문항이 선정되었다.

연구2와 연구3

연구2와 3은 앞서 연구에서 얻은 140개의 문항을 좀 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최종문항을 선정하고 구성 타당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연구2와 연구3은 다양한 표본에서 자료수집을 목표로 여러 지역의 고등학생, 일반인 및 대학생이 포함되었다. 궁극적으로 연구2와 3은 1522명의 동일한 표집에서 나온 표본이나 이중 1055명(표본2)은 최종문항선정과 구성타당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67명(표본3)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2에서 선정된 최종문항이 갖는 요인구조가 적합한 모형인지를 확정짓고, Glick과 Fiske가 제안한 바 있는 4요인 모델과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무선적으로 선택되어 남겨 둔 표본이다.

먼저 연구2에서 사용된 1055명의 조사대상자들 중 대

학생은 5개 대학(수도권 2개, 영남권 2개, 충청권 1개)에 재학 중인 695명이었으며, 일반인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거주하는 127명이었으며, 고등학생은 영남권과 충청권 각 1개 고교의 233명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자와 여자는 각각 523명이었다. 이 표본에서 자신의 성별을 밝히지 않은 조사대상자가 9명이었으며 이들은 남녀 비교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본2의 연령분포는 15세에서 62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21.8세였다.

연구3의 조사대상자는 총 467명이었으며 이중 대학생은 연구2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2개 대, 영남권 2개 대, 충청권 1개 대에서 313명이었고, 일반인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거주하는 50명이었으며, 고등학생은 영남권과 충청권의 2개 고교의 104명이 참여하였다. 이중 남자와 여자는 228명과 235명이었다. 여기서 성별을 밝히지 않은 4명은 남녀 비교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령분포는 15세에서 61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2.0세였다.

연구4

연구4는 구성타당도와 신뢰성이 입증된 36문항의 최종 문항이 기존 성차별주의 척도들과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면서도 기존척도와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척도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즉,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고 두 유형의 성차별주의가 여성에 대한 차별인식과 고정관념들을 잘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한 기존 척도들은 Spence와 Helmreich (1972)의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WS; $\alpha=.87$), Swim 등 (1995)의 전통적 성차별주의 척도(OFS; $\alpha=.74$)와 현대적 성차별주의 척도(MS; $\alpha=.82$), Tougas 등(1995)의 신성차별주의 척도(NEO; $\alpha=.82$), 이석재(1999)의 강간통념수용척도(RMA; $\alpha=.94$), 김양희, 정경아(2000)의 한국형 성평등의식검사(K-GES; $\alpha=.95$)로서 모두 6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중 국내에서 표준화된 한국형 성평등의식검사(김양희, 정경아, 2000)는 하위척도별로 요인 부하량이 높은 2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이석재, 1999)는 1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K-ASI의 추가적인 변별타당도와 준거타당도의 증거를 얻음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인식(RD : Recognition

of Discrimination; $\alpha=.80$)과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긍정 및 부정특성 고정관념척도로서 32문항의 개인적 태도 질문지(EPAQ : Extended Personal Attitudes Questionnaire; $\alpha=.96$)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변별타당도 확인을 위해 사용된 RD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 여성들이 처한 입장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6점 척도의 문항들로 Katz와 Hass(1988)의 pro-Black scale을 여성관련 문항으로 번안한 것이다. 한편 준거타당도의 일환으로 사용된 EPAQ는 남녀의 긍정 및 부정 유인가(valence)의 32개 고정관념 특성들에 대하여 각각의 비율(예컨대, '경쟁적인'이라는 고정관념적 특성에 대하여 전체 남성 중 몇%, 전체 여성 중 몇%가 속하는지를 묻음)을 평정하게 하게 하였다. 연구4에서는 222명의 대학생들이 조사대상이었으며, 남자와 여자가 각각 131명과 84명이었으며, 성별을 밝히지 않은 7명은 남녀 상관비교와 평균 차이비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구5

연구5는 전국단위 조사를 통해 K-ASI가 가진 요인구조의 교차타당도와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대상자(일반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른 K-ASI 점수들 간의 평균차이를 알아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아울러 준거타당도의 일환으로 감정은도로 측정되는 여성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5는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좀 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수도권(서울/경기), 영남, 호남 및 충청지역의 4대 권역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표집을 통해 총 1540명이었으며, 이들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의 면접 및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일반인이 715명, 대학생이 423명, 고등학생이 402명이었고,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성이 772명, 그리고 여성이 768명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29명(47.3%), 영남권 435명(28.2%), 충청권 193명(12.5%), 호남권 183명(11.9%)이다. 그리고 연령별 분포는 16세~78세였으며, 10대 407명(26.4%), 20대 480명(31.2%), 30-40대 422명(27.4%), 50대 이상 231명(15%)이다. 전체 조사대상자 평균연령은 31.96세였다. 표집방법은 일반인의 경우 다단계 무선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표집이

이루어졌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불비례 층화표본추출과 유의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을 혼용하여 표집이 이루어졌다.

결과 및 논의

기초 문항분석

연구1에서 207명의 조사대상자에게 6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6))로 이루어진 157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료에 대한 기초적 문항분석에서 응답분포와 편포도,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제거시 알파계수의 증가 그리고 문항-척도 상관계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탈락대상 문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편포도(skewness)와 용도(kurtosis)의 절대값이 1 이상인 문항이나 표준편차가 1 이하이며, 문항-척도 상관계수가 .30 이하, 평균이 2.00이하이거나 4.50 이상인 문항을 탈락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우선 탈락대상은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문항이었다. 문항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ITEMAN 3.50과 SPSS 11.0이었고, 기준 통계치에 따라 이들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기초 문항분석결과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문항은 5개 문항이었으며, 이 중에는 Glick & Fiske(1996)의 원래 ASI 문항의 하나인 “좋은 여자는 존중되어야 한다.”가 우선 탈락대상 문항에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여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여자는 남자를 잡아 두기 위해 임신을 한다.” 등의 문항이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문항으로 “암 닦이 올면 집안이 망한다.”, “여성이 있으면 사무실 분위기가 부드러워 진다.” 등 12개 문항이 탈락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ASI 원문항 중 “남자는 여자 없이 완전해 질 수 없다.”, “남자에 비해 여성은 더 뛰어난 도덕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등이 3개 기준에 부합되지는 않았으나 충분한 표본에서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탈락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남겨두었다. 모두 17개 문항을 탈락시키고 남은 140개의 문항의 평균분포를 보면 최저 평균이 2.24이었고 최대 평균이 4.37이었다. 표준편차는 최저 1.01~최대 1.51이었다. 문항-척도 상관계수는 최저 .27~최대 .87이었다.

연구2와 3에서는 1차 문항 선정과정을 거쳐 탈락된

17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남은 140문항을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좀더 다양한 응답군을 포함하는 1522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1522명의 조사대상자는 문항선정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표본(1055명)과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467명)으로 무선적인 방식으로 나누었으나, 이들 각 표본에 대해 문항분석은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2와 3을 위한 표본 1522명의 자료에 대한 문항분석 결과, 140 문항의 평균분포는 2.23에서 4.28의 범위에 있었고, 표준편차는 1.10에서 1.41의 범위에 있었으며, 문항-척도 상관계수는 최저 .33에서 최대 .82로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여기서 문항편포와 용도의 절대값이 1 이상인 2 문항을 비롯하여 문항 제거시 기여도를 고려한 11개 문항 등 모두 13개 문항을 제거하고, 나머지 127문항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2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최종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1055명의 조사대상자에게서 얻은 표본2의 자료를 사용하여 문항분석을 통해 얻어진 127문항에 대해 실시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은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요인구조 확인과 문항선정을 위해 주성분분석(PCA)과 최대우도법(ML)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고유치(eigenvalue), 누적설명변량비율, 스크리 검사, 공통성(communality), 해석가능성 등의 기준을 아울러 사용하였다. 요인회전방법은 주성분분석시 Varimax를 사용하였고, 최대우도법을 사용할 때에는 사각회전(Oblimin) 방식을 채택하였다. 우선 주성분분석을 통한 Varimax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모두 24개였고, 이들은 전체 변량의 59.67%를 설명하였다. 고유치가 높았던 10개 요인을 살펴보면 제1 요인 : 지배적 남성주의(HS) 39.34, 제2 요인 : 친밀한 이성애(BS) 7.84, 제3 요인 : 적대적 이성애(HS) 4.68, 제4 요인 : 경쟁적 성역할 분화(HS) 3.54, 제5 요인 : 보호적 남성주의(BS) 2.69, 제6 요인 : 보완적 성역할 분화(BS) 2.31, 제7 요인 : 보완적 성역할 분화(BS)가 1.81의 고유치를 보였다. 그 외 요인들 가운데에는 제8 요인이 1.63

의 고유치를 나타냈는데 이 요인은 주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K-GES)의 ‘가정생활요인’의 문항들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제9 요인은 1.58의 고유치를 가져 ‘남녀간 데이트 규범요인’, 제10 요인과 제11 요인은 각각 1.41과 1.32의 고유치를 보였고 이들은 신 성차별주의 척도(NS)의 ‘차별의 계속에 대한 부정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나머지 요인들은 1~2개 문항이거나, 해석이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7개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44.75%를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보완적 성역할 분화요인들인 제6요인과 제7요인은 2개로 분리되어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남녀별로 따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요인수와 요인 부하량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제6요인과 제7요인은 남녀간의 공통적으로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을 선택함으로써 1개의 요인으로 통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2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척도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우도법(ML)의 사각회전(Oblimin) 방식을 채택하여 요인구조를 다시 확인한 결과 주성분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이들 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요인의 수를 6개로 결정하였다. 6개 요인별로 6-7개의 문항을 가진 하위척도를 구성할 목표 아래, 요인 부하량이 .30 이상이며 공통성이 높은 문항을 기준으로, 그리고 다른 개념의 요인과 높게 관련된 문항을 차례로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127개의 문항 중 81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탈락된 8개 문항 중에는 Glick과 Fiske(1996)의 ASI 척도에서 사용되었던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문항 예를 보면 ‘여성들은 감정이 지나치게 잘 상하는 편이다.’, ‘여성들은 남성을 조종하여 권력을 얻으려 한다.’, ‘여성들은 남성이 여성들을 위해 한 일들에 고마워할 줄 모른다.’,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여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 등이었다. 또한 제거된 81개 문항 중에는 기준에 부합되지만 기존의 성차별주의 척도들에서 나왔거나 그와 유사한 27개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두 46개의 최종 후보 문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46개 문항의 특성을 살펴보

면 요인 부하량의 분포는 .32~.82이었고, 공통성의 분포는 .30~.69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세 가지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첫째는 46개의 후보문항 중 모델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6개의 요인구조를 가진 모델이 Glick과 Fiske가 제안한 바 있는 4요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더 적합한 모델인지 확인하는 것이며, 셋째는 선호된 모델이 여러 표집들에 대해서도 타당한 모델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구성 타당화의 목적이 있었다. 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연구2의 105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고,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연구2의 1055명과 연구3의 467명 표본 각각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목적을 위해서 연구1에서 연구5에 이르는 모든 표집들에 대해 선호된 모델이 적합도를 지니는지 알아보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반복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최종 문항선정

요인구조 모형에 대한 분석에 앞서 AMOS를 통하여 개별 요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계산된 요인계수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문항에 대한 문항-척도상관, 요인별 문항 수의 안배를 고려하여 최종 후보문항 46문항 중 10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제거된 문항들 중에는 Glick과 Fiske(1996)의 원래척도 문항이 4개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문항분석과정에서 이미 일부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으나 요인분석에서도 역시 요인구조를 약화시키는 문항으로 밝혀져 최종적으로 탈락되었다. 탈락된 문항 예를 간단히 살펴보면, 보완적 성역할 분화 요인에서 ‘남자는 여성이 없이 완전해 질 수 없다.’, ‘여성은 남성에게 없는 세심한 점이 있다.’, 적대적 이성애 요인에서 ‘여성은 자신의 매력으로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싶어한다.’, 경쟁적 이성애 요인에서 ‘여성은 직장에서 겪는 문제를 과장한다.’, 보호적 부성주의 요인에서 ‘여성은 남성에 의해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 등이 탈락되었다.

최종 선정된 36개 문항들은 18개 문항이 적대적 성차

별주의(HS)를 측정하는 것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18 문항은 온정적 성차별주의(BS)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분류된 것이다. HS 문항 중에는 지배적 남성주의, 경쟁적 성역할 분화, 적대적 이성애의 각 요인별로 6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졌고, BS 문항으로는 보호적 남성주의의 7개 문항, 보완적 성역할 분화 5문항, 친밀한 이성애는 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부록1 참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문항별 요인 부하량의 분포는 .33에서 .81이었다(표 3). 신뢰도 분석에서 문항 제거시 알파계수는 .91~.92로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문항-척도 상관의 분포는 .26에서 .65였다. 평균의 분포는 2.40에서 4.26이었고, 표준편차는 1.04에서 1.41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요인 모델과 4요인 모델 비교

우선 최종 선정된 척도 문항들에 대한 Glick과 Fiske(1996)가 제안한 4요인 모델과 6요인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연구2와 연구3의 각 표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Glick과 Fiske(1996)에 따르면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가 적대적 성차별주의(HS)는 1차 요인 구조를 갖고,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2차 요인구조를 갖고 있어, 보호적 남성주의, 보완적 성역할 분화, 친밀한 이성애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는 4요인 모델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HS)도 온정적 성차별주의(BS)와 마찬가지로 2차 요인구조를 가지며, HS와 BS 모두 각기 3개의 하위 요인을 갖는 6개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밝히기 위해 연구2와 연구3의 각 표집에 대해 4요인 모델과 6요인 모델을 비교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6요인 모델과 4요인 모델간의 비교

	CFI	NFI	NNFI	RMSEA	χ^2	df
표집2(N=1055)						
6요인 모델***	.917	.883	.911	.044	1811.35	587
4요인 모델	.824	.793	.812	.065	3203.84	590
표집3(N=467)						
6요인 모델***	.906	.827	.899	.046	1264.04	587
4요인 모델	.755	.681	.738	.077	1872.05	590

***p<.001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2와 연구3에서 모두 본 연구의 6요인 모델이 Glick과 Fiske(1996)의 4요인 모델보다 더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안정적으로 보여 주고 있었다. χ^2 검증을 통한 모델비교 결과도 p<.001 수준에서 6요인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χ^2 값이 크면 클수록 모델이 자료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모델의 χ^2 값의 차이값과 자유도의 차이값을 구하여, 두 모델에 대한 적합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기타 적합도 지수들 중 NFI(normed fit index),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는 .90 이상이면 모델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NFI만을 제외하고 모두 .90에 근사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또한 RMSEA는 .05 이하 일 때,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이 결과 역시 본 연구의 6요인 모델이 두 표본에서 모두 .05 이하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요인구조분석

본 연구는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모델간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 2차 요인구조의 6요인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연구2의 1055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6요인 모델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표본 전체에 대한 적합도 지수가 대부분 .90에 근사한 값을 나타내 .90 양호한 요인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비교적 표집 수가 적었던 일반인과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과 남성, 여성에게서 RMSEA가 .05 이하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요인구조는 HS와 BS가 각각 3개의 하위요인을

표 2. 연구2의 1055명 표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표본2	CFI	NFI	NNFI	RMSEA	$\chi^2(df=587)$
전 체(1055)	.917	.883	.911	.044	1811.35
대학생(695)	.905	.855	.899	.048	1522.81
일반인(127)	.852	.698	.841	.072	966.72
고교생(233)	.847	.709	.835	.057	1035.34
남 자(523)	.866	.786	.856	.050	1348.08
여 자(523)	.894	.814	.886	.045	1217.50

()안은 N=사례수.

갖는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각 하위요인은 우선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척도는 지배적 남성주의, 경쟁적 성역할 분화, 적대적 이성애 요인으로 구성되고,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보호적 남성주의, 보완적 성역할 분화, 친밀한 이성애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렇게 확인된 요인 구조의 보다 안정된 증거를

표 3. 각 표집별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요인 부하량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표 집(sample)				
	1	2	3	4	5
적대적 성차별주의(HS) 문항					
지배적 남성주의					
집의 소유주(명의)는 남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69	.81	.77	.79	.71
남자의 권위가 여자보다 큰 가정이 안정적이다.	.72	.78	.69	.72	.65
대체로 모임의 리더는 남성이 맡는 것이 좋다.	.73	.74	.72	.78	.65
여성이 주도권을 갖는 남녀 관계는 결국 불행하다.	.59	.68	.59	.72	.64
여성은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일보다는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일에 더 적합하다.	.60	.66	.65	.71	.63
중요한 뉴스는 여자 아나운서보다 남자 아나운서가 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58	.65	.67	.70	.59
경쟁적 성분화					
요사이 여성의 권익 옹호를 위한 발언은 공평을 넘어서서 지나치다.	.69	.79	.75	.75	.60
여권운동가들은 남성들에게 터무니없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77	.78	.76	.74	.67
공정한 경쟁인데도 지기라도 하면 여성들은 성차별이라고 불평한다.	.46	.73	.74	.75	.73
여권운동가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식이다.	.71	.72	.71	.69	.63
대부분의 여성들은 별 뜻이 없는 말이나 행동조차도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	.44	.68	.64	.62	.58
여성들은 평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남성 이상의 특별대우를 요구한다.	.48	.56	.52	.58	.53
적대적 이성애					
여성들은 남자에게 애교를 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한다.	.70	.71	.75	.58	.59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러먹는다.	.83	.70	.69	.60	.59
여자는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미모를 이용한다.	.72	.69	.71	.51	.59
많은 여성들은 호감이 있는 듯이 행동하다가도 막상 남자가 다가가면 차버리는 식으로 남자를 골탕 먹인다.	.52	.65	.67	.72	.56
여성은 성격으로 순진한 척 해서 남성이 매달리게 만든다.	.39	.64	.62	.76	.67
여성은 자신에게 헌신적인 남자가 생기면 그를 구속하려 든다.	.38	.53	.52	.64	.52
온정적 성차별주의(BS)문항					
보호적 남성주의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81	.70	.69	.76	.62
늦은 밤에는 남자가 여자를 집에까지 배려다주어야 한다.	.58	.67	.67	.63	.64
남자와 여자가 함께 길을 걸을 때 여자를 안전한 인도 쪽으로 걷게 해야 한다.	.56	.67	.70	.70	.66
가벼운 짐일 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보다는 남성이 들어 주어야 한다.	.63	.66	.66	.59	.64
신체 상의 위험부담이 큰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58	.63	.66	.63	.60
출입 시에 남성은 여성이 먼저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60	.60	.51	.63	.59
재난을 당했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먼저 구조되어야 한다.	.44	.47	.53	.38	.47
보완적 성분화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섬세함을 지니고 있다.	.75	.68	.61	.71	.63
여성의 선천적인 부드러움은 남성이 따라갈 수 없다.	.59	.60	.58	.47	.49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53	.56	.53	.64	.64
남자에 비해 여성은 문화적으로 더 세련된 취향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38	.49	.43	.54	.49
많은 여성들은 남성에게는 거의 없는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	.29	.33	.27	.27	.37
친밀한 이성애					
남성이라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	.82	.76	.75	.75	.69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85	.75	.73	.70	.62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77	.71	.75	.79	.68
남자는 자신을 믿고 알아주는 여자가 있을 때에만 행복해 질 수 있다.	.73	.69	.69	.78	.65
남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가 있는 것이다.	.74	.67	.67	.71	.65
남성은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성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	.72	.66	.65	.75	.61
사례수(N)	207	1055	467	222	1540

얻기 위해 지금까지 5개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표집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5개 연구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각 요인별 요인 부하량을 제시한 것이다. 이 결과는 최종 선정된 36문항의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에서 HS와 BS가 각기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6요인 모델을 가정하여 AMOS 5.0을 통해 계산된 각 요인별 부하량을 나타낸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각 연구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보완적 성역할 분화의 ‘많은 여성들은 남성에게 거의 없는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를 제외하고, 대체로 .4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문항이 해당 요인과 높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로서 6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다양한 표본에 걸쳐서 매우 일관성 있게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 증거들로서 본 연구가 가정한 2차 요인구조의 6요인 모델이 타당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각 표본별 K-ASI척도 및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인 Cronbach의 α 검증을 통하여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내적 합치도는 검사의 일부분이 어떤 개념을 측정하는데 과연 나머지 부분도 그 개념을 잘 측정하는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내적 합치도는 타당도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표 4는 5개 연구에 걸쳐 나타난 K-ASI 전체 척도, HS와 BS 및 그 하위척도 별 내적 합치도 계수들이다.

표 4. 각 연구별 K-ASI 전체 및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Cronbach α)

K-ASI 척도	표 본(sample)				
	1	2	3	4	5
K-ASI 전체	.89	.92	.91	.92	.90
HS	.86	.91	.90	.91	.87
지배적 남성주의	.81	.87	.84	.87	.81
경쟁적 성분화	.77	.86	.84	.84	.79
적대적 이성애	.76	.82	.82	.80	.76
BS	.85	.87	.86	.88	.88
보호적 남성주의	.80	.82	.82	.81	.80
보완적 성분화	.62	.66	.60	.66	.65
친밀한 이성애	.90	.86	.86	.88	.81
사례수(N)	207	1055	467	222	1540

각 연구에서 나타난 6개 하위 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60에서 .91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수 있는 것은 HS의 내적 합치도 보다 BS의 내적 합치도 계수가 여러 연구에 걸쳐서 비교적 낮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완적 성역할 분화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하위척도에 비해서 문항 수가 비교적 적었으며, 또한 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완적 성역할 분화 문항 중 Glick과 Fiske(1996)의 원래 척도에서 8번 문항으로 사용되었던 ‘많은 여성들은 남성에게 거의 없는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가 문항 제거시 알파(α)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국내의 조사대상자들에게는 다소 이질적인 문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K-ASI 하위척도인 HS와 BS척도간의 관계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하위척도인 HS와 BS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5개 연구의 각 표본별로 HS와 BS 척도의 원점수간 상관을 구하였다. 표 5는 각 표본들에서 HS와 BS척도간의 상관을 표본전체, 남성 및 여성별로 나누어 따로 제시하였다.

우선 각 연구별 표본전체에서 나타난 HS와 BS척도 원점수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38에서 .48까지 분포하였다. 이는 미국의 표본에서 .40~.50의 상관을 얻었던 Glick과 Fiske(1996)의 ASI의 결과와 유사한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온건한 정도의 상관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하위 척도들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면서, 동시에

표 5. 전체, 남성, 여성의 HS와 BS간의 상관계수(r)

	표 본(sample)				
	1	2	3	4	5
전체					
상관(r)	.38***	.45***	.40***	.48***	.46***
N	207	1055	467	222	1540
남성					
상관(r)	.24*	.23***	.15*	.32***	.37***
N	112	523	228	131	772
여성					
상관(r)	.34***	.42***	.45***	.44***	.51***
N	95	523	235	84	768

* $p < .05$, *** $p < .001$

이 둘은 완전히 중복되지는 않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HS와 BS간의 이러한 정적 상관이 의미하는 것은 HS가 남성의 지배적인 사회적 역할에 따르지 않는 여성에 대한 처벌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BS는 여성을 보호와 호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한편 피상적으로는 여성에 우호적인 것 같지만 BS의 이면에는 남성 지배적인 역할과 행동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고, 사회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여성의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성차별주의적 속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얻은 상관분포는 문화 비교연구(Glick et al., 2000)의 한국 표본에서 얻은 상관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달리 그들은 ASI의 원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HS와 BS의 상관이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별로 HS와 BS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별로 나타난 HS와 BS의 상관은 5개의 표본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일관성 있게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상관의 차이검증을 통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연구1과 4의 경우, 상관의 차이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으나 $Z=.79, ns, Z=.88, ns$, 두 표본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HS와 BS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큰 표본이었던 2와 3, 그리고 5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HS와 BS의 상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Z=3.36, p<.001, Z=3.63, p<.001, Z=5.69, p<.001$. 이 결과에 대한 Glick과 Fiske(1996, 2000)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나타나는 HS와 BS 간 상관의 차이는 남성이 동기적 지향에 따라 적대적이거나 온정적인 성 편견태도를 보임으로써 여성보다 좀더 분화된 형태의 성차별주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관이 낮은 반면에,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일반적 태도에 순응하거나 거부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즉 여성들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에 동조하거나 혹은 모두 거부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HS와 BS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Glick과 Fiske(1996)의 연구에서는 일반인 남성표본이

표 6. 성별, 대상자별 HS와 BS간의 상관계수(r)

	표 본(sample)		
	2	3	5
전체			
고등학생	.38*** (N=233)	.37*** (N=104)	.48*** (N=402)
대학생	.42*** (N=695)	.41*** (N=313)	.49*** (N=423)
일반인	.54*** (N=127)	.27 (N=49)	.40*** (N=715)
남성			
고등학생	.14*** (N=99)	.17 (N=51)	.30*** (N=202)
대학생	.14*** (N=362)	.11 (N=149)	.37*** (N=209)
일반인	.54*** (N=62)	.10 (N=28)	.40*** (N=361)
여성			
고등학생	.30*** (N=134)	.47*** (N=53)	.59*** (N=200)
대학생	.40*** (N=333)	.45*** (N=161)	.40*** (N=204)
일반인	.54*** (N=64)	.24 (N=21)	.44*** (N=354)

*** $p<.001$

대학생 남성표본에 비해서 HS와 BS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인 반면에 Masser와 Abrams(1999)의 연구에서는 일반인 남성이 고등학생 남성에 비하여 HS와 BS의 상관이 오히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표본을 사용하였던 연구2와 3 그리고 연구5의 응답 자료에 대하여 전체 및 남녀별로 HS와 BS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표 6은 연구2와 3 그리고 연구5의 표본에서 얻은 성별, 대상자별 HS와 BS간의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자료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HS와 BS의 상관이 일관성 있게 낮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표 5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남성의 경우 일반인-고등학생 그리고 일반인-대학생간의 HS와 BS의 상관차이비교는 Glick과 Fiske(1996)나 Masser와 Abrams(1999)의 결과 중 어느 하나를 분명하게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큰 연구2와 연구5의 경우 일반인 남성에게서의 HS와 BS간의 상관인 고등학생 남성에게서의 HS와 BS의 상관보다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연구2에서 일반인 남성과 고등학생 남성에서 HS와 BS의 상관차이가 유의하였으며, $Z=2.90, p<.01$, 또한 일반인 남성과 대학생 남성에서의 상관차이가 유의하였다, $Z=3.41, p<.01$. 전국단위의 표본을 사용한 연구5의 경우, 일반인 남성-고등학생 남성에서의 HS와 BS의 상관차이가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Z=1.26, p<.10$. 하지만 일반인 남성-대학생 남성에서의 HS와 BS의 상관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Z=.073, ns$.

이 결과는 남성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여성에 대한 태도가 경험적으로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HS와 BS가 더 잘 분화되어 상관이 낮아질 것이라는 Glick과 Fiske (1996)의 가정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Masser와 Abrams(1999)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 문화에 보편적인 여성에 대한 적대적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였을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부정주의적 역할이나 남녀관계에서 경험 증가로, 온정적 편견과 긍정적 고정관념 요소가 통합되어짐에 따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 일반인 남성이 더 높은 HS와 BS간의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일반인 남성의 HS와 BS간의 상관인 고등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 Masser와 Abrams(1999)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기는 어렵다.

K-ASI, HS, BS 평균점수에서의 남녀차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와 하위척도인 HS와 BS 점수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표 7과 같이 각 표본별로 남녀의 K-ASI 전체점수, HS 점수 및 BS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K-ASI 전체 점수는 HS 문항들과 BS 문항 점수들 전체의 평균으로 얻어졌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가 여성에 대한 성 편견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남성과 여성이 K-ASI 전체척도와 하위척도인 HS와 BS에서 평균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HS 점수에서 남녀차이가 BS에서의 남녀차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5개 연구의 각 표본별로 각각 2(성 : 남성, 여성)×2(K-ASI 하위척도 : HS,

표 7. 각 표본별 K-ASI, HS, BS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표 본(sample)				
	1	2	3	4	5
남성					
K-ASI	3.58(.48)	3.77(.50)	3.71(.48)	3.66(.51)	3.27(.43)
HS	3.18(.58)	3.47(.65)	3.43(.62)	3.52(.60)	3.16(.49)
BS	3.97(.64)	4.07(.63)	4.00(.65)	3.79(.64)	3.39(.53)
사례수(N)	112	523	228	131	772
여성					
K-ASI	3.08(.50)	3.04(.56)	3.09(.55)	2.95(.53)	2.96(.48)
HS	2.63(.58)	2.50(.63)	2.56(.62)	2.60(.59)	2.68(.52)
BS	3.50(.63)	3.59(.71)	3.62(.68)	3.29(.66)	3.23(.59)
사례수(N)	95	523	235	84	768

BS)의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성(남성/여성)은 집단간 변인이었고, K-ASI 하위척도(HS/BS)는 집단내 변인이었다.

5개 표본 각각에 대한 성(남성/여성)×편견유형(HS/BS)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표본 모두에서 집단간 변인인 성(남성/여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표본1, $F(1, 205)=52.06, p<.001$; 표본2, $F(1, 1044)=492.58, p<.001$; 표본3, $F(1, 461)=168.16, p<.001$; 표본4, $F(1, 213)=96.77, p<.001$; 표본5, $F(1, 1538)=187.62, p<.001$]. 또한 예비조사를 위한 표본이었던 표본1을 제외하고, $F(1, 205)=1.51, ns$, 표본2 ~ 5는 성(남성/여성)과 편견유형(HS/BS)간의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미하였다 [표본2, $F(1, 1044)=107.95, p<.001$; 표본3, $F(1, 461)=46.31, p<.001$; 표본4, $F(1, 213)=19.15, p<.001$; 표본5, $F(1, 1538)=116.15, p<.001$].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5개 표본에서 성(남성/여성)변인에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K-ASI 전체 점수가 HS와 BS를 평균한 점수이기 때문에 K-ASI의 전체 점수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즉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4개 표본 모두에서 일관성 있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편견태도를 보였다. 사실 여성에 대한 성 편견태도를 측정하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편견태도를 보인다면 이 척도의 타당성이 의심스러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자들의 기대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성(남성/여성)과 편견유형(HS/BS)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HS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BS에서의 남녀간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2, 3, 4, 5 각각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표본2의 경우, HS에서의 남녀간 평균차이($M=3.47, SD=.65$ vs. $M=2.50, SD=.63$)가 $F(1, 1044)=607.14, p<.001$ 이었던데 비해 BS에서의 남녀간 평균차이($M=4.07, SD=.63$ vs. $M=3.59, SD=.71$)가 $F(1, 1044)=139.58, p<.001$ 로 모두 유의하였다. HS와 BS에서 남녀간 평균차이에 관한 두 개의 F검증의 결과의 유의성 차이로 볼 때, 이는 HS에서의 남녀간의 차이가 BS에서의 남녀간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본3의 경우, HS에서의 남녀간 평균차이($M=3.43, SD=.62$ vs. $M=2.56, SD=.62$)가 $F(1, 461)=225.46, p<.001$ 인데 비해 BS에서의 남녀간 평균차이($M=4.00, SD=.65$ vs. $M=3.62, SD=.68$)가 $F(1, 461)=38.64, p<.001$ 로 모두 유의하였다. 두 개의 F검증 결과의 차이로 볼 때, 표본3에서도 역시 HS에서의 남녀간의 차이가 BS에서보다 더 컸음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표본4의 경우, HS에서의 남녀간 평균차이($M=3.52, SD=.60$ vs. $M=2.60, SD=.59$)가 $F(1, 213)=122.28, p<.001$ 이었던데 비해 BS에서의 남녀간 평균차이($M=3.79, SD=.64$ vs. $M=3.29, SD=.66$)가 $F(1, 213)=29.48, p<.001$ 로 HS에서의 남녀간 차이가 BS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표본5의 경우도 역시 HS에서의 남녀 평균차이($M=3.16, SD=.49$ vs. $M=2.68, SD=.52$)가 BS에서의 남녀 평균차이($M=3.39, SD=.53$ vs. $M=3.23, SD=.59$)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Glick과 Fiske(1996, 2000)가 개발한 ASI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일관되게 얻은 바 있다. 즉 여성 응답자들은 여성에 대해 비우호적인 적대적 성차별주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는데 비해, 온정적 성차별주의 문항들은 표면적으로 여성을 보호하고 우호적인 듯이 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기저에 깔린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내용들을 간파하지 못하고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K-ASI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K-ASI와 기존 성차별주의 척도들과의 관계

K-ASI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의 증거를 얻기 위

표 8. K-ASI 및 HS, BS와 기존척도들과의 관계

ASI 척도	기존 성차별주의 및 적대감 척도					
	AWS	KGES	OFS	MS	NEO	RMA
ASI	.59***	.71***	.51***	.56***	.61***	.48***
HS	.62***	.76***	.58***	.64***	.70***	.58***
BS	.39***	.45***	.27***	.32***	.33***	.23***
HS(BS통제 후)	.54***	.69***	.54***	.59***	.65***	.55***
BS(HS통제 후)	.14*	.15*	-.02	.01	.00	-.07

* $p<.05$, *** $p<.001$

해 연구4의 222명의 표본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WS; Spence & Helmreich, 1972), 한국형 남녀평등의 식검사(K-GES; 김양희, 정경아, 1999), 전통적 성차별주의 척도(OFS; Swim, Aikin, Hall & Hunter, 1995) 및 현대적 성차별주의 척도(MS; Swim et al., 1995), 신 성차별주의 척도(NEO; Tougas, Brown, Beaton, & Joly, 1995) 그리고 강간통념수용 척도(RMA; 이석재, 1999; Burt, 1980)를 실시하였다. 이들 척도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이나 여성의 권익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SI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척도(HS)가 이들 5개의 기존 척도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표 8은 5개의 기존 척도들과 K-ASI 및 하위 척도인 HS와 BS간의 상관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K-ASI의 점수는 기존의 성차별주의 척도들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S를 통제한 후에 나타난 HS와 기존의 다른 척도들간의 상관(즉, 편상관)에 비추어 볼 때, K-ASI와 기존 척도들간 상관 대부분이 HS와의 상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HS는 기존의 다른 척도들과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들 기존 척도들과 유사하지만 중복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BS는 기존 척도들과의 상관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HS와의 상관을 제거하고 나면, 기존 성차별주의 척도들과 BS간의 상관은 거의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아 졌다. 이 결과는 Glick과 Fiske(1996)의 주장처럼 K-ASI가 기존의 척도들과는 달리 온정적 성차별주의(BS)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성차별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K-ASI와 여성에 대한 차별인식간의 관계

여성에 대한 차별의 인식(recognition of discrimination : 이하 RD라 함)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과 여성들이 처한 입장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Katz와 Hass(1988)의 pro-Black scale을 여성관련 문항으로 변안한 것이다($\alpha=.80$). 즉 여성에 대한 차별 인식은 여성이 처한 입장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RD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적대적 편견을 덜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온정적 성차별주의와는 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에 대한 변별타당도의 증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K-ASI와 RD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HS와 BS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RD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D는 HS와 부적으로 더 강하게 관련($\beta=-.6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9.76$, $p<.001$. 반면에 BS와 RD는 HS와의 관련 부분을 제거하였을 때 RD와 다소 약하면서 정적으로 관련($\beta=.1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1$, $p<.05$. 이와 같이 HS와 RD간 상관이 부적으로 나타난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McConahay(1986)의 주장과 상당한 일치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RD와 HS 그리고 RD와 BS의 상관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은 적대적 형태와 온정적 형태의 성차별주의가 구분되어 질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보인다. 비록 BS와 RD간의 상관이 다소 약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BS가 3개의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BS가 높은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이 성차별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이들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장애요소들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K-ASI의 준거타당도

K-ASI와 성 고정관념과의 관계

K-ASI척도가 준거타당도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4의 조사대상자인 222명을 대상으로 Eagly와 Maldinic(1989)의 EPAQ를 사용하여 남녀 각각에 대한 긍정 및 부정 유인기(valence)의 고정관념 특성 차원들에 대한 비율

표 9. 고정관념에 대한 준거지표로서의 K-ASI

K-ASI 척도	여성특성		남성특성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남성 응답자				
ASI	.14	.09	.15	.10
HS(BS 통제 후)	-.12	.29**	.03	.14
BS(HS 통제 후)	.26**	-.19*	.14	-.02
여성 응답자				
ASI	.09	.08	.15	.12
HS(BS 통제 후)	-.06	.06	-.06	.07
BS(HS 통제 후)	.16	.01	.20	.07

* $p<.05$, ** $p<.01$

을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평정과 ASI, HS 및 BS 점수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HS와 BS의 상관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HS와 BS는 편상관 계수를 얻었다. 표 9는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별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긍정 및 부정 특성 고정관념과 K-ASI, HS 및 BS간의 상관을 제시한 것이다.

표 9를 살펴보면 K-ASI가 예측한 방향대로 여성에 관한 고정관념과 상관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HS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의 부정적 고정관념 특성 평가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반대로 여성의 긍정특성 평가점수에 대해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BS는 여성의 부정적 고정관념 특성 평가점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긍정적 고정관념 특성 평가점수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인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응답자들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Glick과 Fiske(1996) 결과와도 상당한 일치점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가 특히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고정관념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ASI와 여성에 대한 감정온도

본 연구5에서는 전국단위 조사에서 1540명의 조사대상

표 10. 여성에 대한 감정온도에 대한 준거지표로서 K-ASI

	응답자	
	남성(N=772)	여성(N=768)
K-ASI	.02	-.15***
HS	-.12***	-.16***
BS	.13***	-.10***
HS(BS 통제 후)	-.18***	-.13***
BS(HS 통제 후)	.19***	-.02

*** $p < .001$

자에 대하여 12개 여성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들 각각에 대한 감정온도(0 : 매우 차갑다 ~ 99 : 매우 따뜻하다)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HS는 여성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며 BS는 긍정적 태도와 상관이 높으리라고 예측된다. 12개 여성하위집단은 가정주부, 이혼녀, 여권운동가, 전문직 여성 등 전통적 여성집단과 비전통적 여성집단들이었다. K-ASI 및 그 하위척도인 HS와 BS가 여성들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잘 예언하는지에 대한 준거타당화의 증거를 얻기 위해 12개 여성하위 집단에 대한 감정온도 평가의 전체 평균과 K-ASI, HS, BS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도 앞서 고정관념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HS와 BS는 상호간 상관을 배제하기 위해 편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데와 같이 남성 응답자의 경우, HS는 BS 통제 후 여성에 대한 감정온도 평가를 더 부적으로 예언하는 데 비해서, BS는 HS 통제 후 여성에 대한 감정온도를 더 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응답자들의 경우, HS를 통제 후에 BS가 덜 부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비전통적 여성 고정관념 집단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전통적 여성관념 집단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K-ASI 점수의 비교

여기서는 전국단위의 표집을 통해 얻은 연구5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K-ASI 점수를 비교할 목적으로 지역(권역)별, 연령대별, 대상자별(일반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5

는 1540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대표성이 있는 표집을 통해 HS와 BS 각각에 대해서 지역별, 연령별, 대상자별 평균차이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준거타당화의 증거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분석에서 지역변인은 수도권(서울/경기),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이었으며, 연령변인은 10대, 20대, 30/40대, 50대 이상, 그리고 대상자변인은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이었다.

K-ASI의 연령간 비교

본 연구에서는 1540명의 전국단위 표본을 사용한 연구5의 자료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른 K-ASI 점수들 간의 차이를 알아 볼 목적으로 HS와 BS의 연령대별 평균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4(연령 : 10대, 20대, 3,40대, 50대)×2(성 : 남성, 여성)×2(편견유형 : HS, BS)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편견유형은 피험자내 변인이었고, 연령과 성은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표 11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K-ASI, HS 및 BS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표 11. 연령과 성별에 따른 K-ASI, HS, BS의 평균(표준편차)

	연령			
	10대	20대	30-40대	50대 이상
전체				
K-ASI	3.08(.54)	3.03(.47)	3.17(.43)	3.24(.46)
HS	2.89(.61)	2.84(.56)	2.96(.52)	3.05(.53)
BS	3.27(.63)	3.21(.54)	3.40(.53)	3.43(.56)
N	407	480	422	231
남성				
K-ASI	3.24(.44)	3.26(.42)	3.27(.43)	3.35(.43)
HS	3.14(.51)	3.14(.47)	3.14(.51)	3.26(.49)
BS	3.36(.56)	3.37(.53)	3.41(.52)	3.45(.53)
N	204	239	212	117
여성				
K-ASI	2.92(.58)	2.80(.40)	3.07(.43)	3.12(.46)
HS	2.65(.61)	2.55(.48)	2.77(.46)	2.84(.48)
BS	3.19(.70)	3.05(.50)	3.38(.54)	3.40(.59)
N	203	241	210	114

변량분석 결과, 연령과 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532)=163.71, p<.001$. 또한 연령과 편견유형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F(3, 1532)=15.14, p<.001, F(1, 1532)=670.65, p<.001$. 그리고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F(3, 1532)=7.09, p<.001$, 편견유형과 성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532)=115.04, p<.001$.

이 결과에서 HS와 BS의 평균은 K-ASI 점수에 해당하므로, 성의 주효과는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남성이 여성보다 K-ASI 점수 즉, 양가적 성차별주의 편견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편견유형의 주효과나 연령의 주효과 그리고 성과 편견유형,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역시 K-ASI 점수에 대한 평균차이를 알아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이 분석의 주관심사는 연령과 편견유형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가하는 것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3, 1536)=1.36, ns$.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대안으로 HS에서 연령의 차이와 BS에서 연령의 차이를 각각 알아보았다. 그 결과 HS에서 연령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F(3, 1536)=8.21, p<.001$. 연령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에서, 50대 이상-10대간의 차이($p<.01$), 50대 이상-20대간의 차이($p<.001$)가 유의미하였고, 30대와 40대-20대간의 차이($p<.05$)가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30대와 40대-10대간의 차이(ns)와 10대-20대간의 차이(ns)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BS에서 연령간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1536)=12.16, p<.001$. 연령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에서 10대-20대간의 차이(ns), 그리고 30대와 40대-50대 이상간의 평균차이(ns)가 유의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유의미하였다($p<.05$).

이 결과를 요약하면 HS와 BS에서의 연령차이는 30대 이전 세대와 30대 이후 세대간의 차이를 시사하는 것으로 30대 이전 세대들이 30대 이후 세대들 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 낮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K-ASI와 지역간 비교

연구5의 1540명의 전국단위 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HS와 BS에서 지역별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고자 4(지역 :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2(성 : 남성, 여성)×2(편견유형 : HS, BS)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

표 12. 지역별 K-ASI, HS 및 BS의 평균(표준편차)

	지 역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K-ASI	3.08(.47)	3.18(.50)	3.10(.41)	3.12(.54)
HS	2.88(.55)	2.97(.59)	2.91(.48)	2.97(.62)
BS	3.29(.56)	3.38(.59)	3.28(.51)	3.31(.57)
N	729	435	193	183

다. 여기서도 역시 편견유형은 피험자내 변인이었고, 지역과 성은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표 12는 지역별 K-ASI, HS 및 BS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변량분석 결과, 지역, 성 및 편견유형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 1532)=3.82, p<.01, F(1, 1532)=136.27, p<.001, F(1, 1532)=477.52, p<.001$, 편견유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532)=78.63, p<.001$. 그리고 편견유형과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 경향을 보였다, $F(2, 1532)=2.11, p<.10$.

본 연구의 주관심사인 편견유형과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HS에서 지역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F(3, 1536)=3.34, p<.05$, BS에서 지역 간의 차이도가 유의미하였다, $F(3, 1536)=3.40, p<.01$. 먼저 HS에서의 지역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영남권과 수도권간의 HS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영남권($M=2.97, SD=.59$)이 수도권($M=2.88, SD=.55$)보다 HS가 더 높았다. 그러나 영남권-충청권, 영남권-호남권, 수도권-충청권, 수도권-호남권, 충청권-호남권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BS에서의 지역 간의 차이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영남권과 수도권간의 BS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영남권($M=3.38, SD=.59$)이 수도권($M=3.29, SD=.56$)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영남권은 적대적 성차별주의(HS)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S)에서 모두 수도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다른 지역과 영남권간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표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도권, 충청권 및 호남권이 유사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이는 반면에 영남권이 비교적 높은 HS와 BS 점수를 일관성 있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ASI와 대상자간의 비교

연구5의 전국단위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HS와 BS에서 대상자들(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간의 평균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3(대상자 :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2(성별 : 남성, 여성)×2(편견유형 : HS, BS)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편견유형은 피험자내 변인이며, 대상자와 성별은 집단간 변인이었다. 표 13은 대상자별 K-ASI, HS 및 BS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표 13. 대상자별 K-ASI, HS 및 BS의 평균(표준편차)

	대 상 자		
	고등학생	대 학 생	일 반 인
K-ASI	3.08(.54)	3.02(.47)	3.19(.45)
HS	2.89(.62)	2.83(.56)	2.98(.53)
BS	3.27(.63)	3.19(.54)	3.39(.54)
N	402	423	715

변량분석 결과, 대상자, 성 및 편견유형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견유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대상자와 성별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모두 $p < .001$). 이들 주효과와 상호작용들은 앞서 연령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주관심사가 아니었다. 성별과 편견유형간의 상호작용은 앞서 'K-ASI, HS, BS 평균점수의 남녀 비교'에 관한 분석에서 표본5에 대한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이 분석에서 주관심사는 편견유형과 대상자간의 상호작용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 1534)=1.59, ns$. 따라서 그 대안으로 HS에서 대상자간 차이와 BS에서 대상자간의 차이를 각각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 결과, HS에서 대상자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F(2, 1537)=9.25, p < .001$. 대상자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에서, 일반인-고등학생간의 차이($p < .05$)와 일반인-대학생간의 차이($p < .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고등학생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BS에서 대상자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본 결과, HS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인-고등학생간의 차이($p < .01$)와 일반인-대학생간의 차이($p < .001$)가 유의하였으나 대학생-고등학생간의 차이(ns)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HS와 BS 모두 일반인들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예비조사에서 내용 타당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157개의 문항 원집합을 개발하였다. 둘째, 연구1과 2에서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편포, 표준편차, 문항-척도 상관관계, 알파계수 그리고 요인 부하량을 토대로 HS 척도 18문항과 BS 척도 18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38개의 최종 K-ASI 척도를 구성하였다. 셋째, 최종 선정된 K-ASI 척도 문항들에 대해 연구1에서 연구5에 걸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6개 구성개념에 부합되는 요인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두 개의 주 요인인 적대적 성차별주의(HS)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S)가 각기 3개의 하위요인을 갖는 6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네 번째로 연구4에서 K-ASI와 기존의 성차별주의 척도들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먼저 상관관계 분석에서 K-ASI 전체점수, HS 점수 및 BS 점수와 기존 성차별주의 척도들 간의 상관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BS를 통계적으로 통제(편상관) 분석에서는 HS와 기존 성차별주의 척도들과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HS를 통제 후 BS와 기존 성차별주의 척도들 간의 편상관은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기대 하였던 바와 같이 성 편견이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가정으로 개발된 기존 성차별주의 척도와 K-ASI 간의 상관의 대부분이 HS와의 상관에 기인하고, BS는 기존 성차별주의 척도에 미쳐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의 편견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K-ASI는 하위 척도인 HS는 적대감과 관련이 있는 기존 이론들을 포괄하는 수렴타당도를 가지면서도, 기존 이론과 다른 부분의 편견까지도 새롭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변별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외에도 연구4에서는 또한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HS는 여성의 부정특성 고정관념들에 대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BS는 여성의 긍정특성 고정관념들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K-ASI는 여성에 대한 차별 인식에 관해서도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회귀분석의 결과 HS는 여성에 대한 차별인식을 부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비해서 BS는 정적으로 예언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연구5에서는 12개 전통적 및 비전통적 여성취위 집단에 대한 감정온도 평가에서도 HS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성이 높고 BS는 여성고정관념 집단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에 대한 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음에도 여전히 성차별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HS와 BS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분석에서 보다 잘 드러나고 있다. HS와 BS간의 상관분석에서 본 연구의 모든 표본들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온전한 정도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Glick과 Fiske(1996)의 결과를 신뢰롭게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한 연구(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준비중)에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성차별주의의 다른 형태라는 것을 보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여성 집단(예컨대, 페미니스트, 가정주부 및 여성사회사업가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한편 미혼모나 이혼녀 등과 같이 성이나 결혼에 있어 규범적으로 이탈된 여성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의 성적 도덕성이나 순수성에 대한 지나친 칭송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에 벗어난 듯이 보이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욱 부정적으로 매도하게 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해석하였다.

HS와 BS간의 상관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유의하게 낮은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Glick과 Fiske(1996)와 Glick 등(2000)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들은 남녀관계에 따른 동기적 지향 즉, 지배적 동기가 강하거나 혹은 친밀 동기가 강인가 여부에 따라 HS와 BS의 분화가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둘 간의 상관이 더 낮았을 수 있는 반면, 여성들이 HS와 BS간의 상관이 높은 것은 그 문화나 사회적 규범들 속에 내포된 남성 위주의 체제 정당화 논리들에 순응하여 HS와 BS를 모두 수용하였거나 이와는 반대로 HS뿐만 아니라 BS에

암묵적으로 포함된 남성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정확히 간파하여 HS와 BS를 모두 거부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에 근거하면 남녀간 교류기회가 많은 일반인들이 그 기회가 비교적 제한된 젊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나 친밀감의 어느 한쪽 방향으로의 동기가 형성되기 쉽고 따라서 HS와 BS간의 상관이 더 낮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2와 5에서의 일반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표집에 대한 HS와 BS간의 상관차이분석은 일반인 표집의 남성보다 오히려 낮은 HS와 BS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한 Masser와 Abrams(1999)의 설명에 따르면 젊은 남성의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일찍부터 먼저 여성에 대한 적대적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을 받아들이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성주의적 역할이나 남녀관계에서 경험도 많아져 비로소 온정적 편견과 긍정적 고정관념 요소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 일반인 남성이 더 높은 HS와 BS간의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상반된 두 가지 가정을 확정지을 만큼 충분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많은 표본을 사용하였던 연구5의 표집에서 차이의 경향성만 나타났고 유의한 상관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표 11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별 HS와 BS의 평균차이를 비교한 분석에서 젊은 남성의 경우 HS가 50대 이상의 남성들보다 낮은 것으로 볼 때 적대적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을 먼저 형성한다는 Masser와 Abrams(1999)의 설명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젊은 남성의 경우도 HS에서의 남녀간 평균차이가 BS에서의 남녀간 평균차이보다 더 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BS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동기적 분화를 강조한 Glick과 Fiske(1996)의 설명과 통합을 강조한 Masser와 Abrams(1999)의 설명에 대한 한 가지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다. 즉, 여성의 HS와 BS간의 상관이 남성보다 더 높고,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성인이 더 높다는 것에 대한 대안적 설명은 Glick과 Fiske(1996)와 같이 남녀의 차이에 대해, 남성의 경우는 동기적 분화로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편견의 수용 혹은 거부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스스로에 대한 편견점수가 남성들

의 여성에 대한 편견점수보다 당연히 낮으며, 한편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스스로에 대한 여러 측면의 자기 개념들을 더 잘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HS와 BS간의 상관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젊은 남성의 경우 일찍부터 그 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적대적 편견을 받아들이거나 아직 성인들만큼 HS나 BS의 편견적 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여성과의 접촉이 많지 않으므로 HS와 BS가 통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HS와 BS간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증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S와 BS가 형성되는 시기의 차이가 존재하고 HS가 조기에 습득되는 것이라면, 비교적 이성교제가 활발한 고등학생 이전의 어느 시점에 대한 표본들을 검토하는 것도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S와 BS간의 상관차이 분석은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성인들이 젊은 남성들보다 더 높은 HS-BS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HS와 BS간의 평균차이 분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성인들이 젊은 남성들보다 HS와 BS 점수 모두 더 높게 나타냈다. 즉 여성의 경우 HS와 BS의 상관은 높지만 평균점수는 낮았고, 젊은 남성의 경우 HS와 BS의 상관도 낮고 평균점수도 낮았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HS와 BS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반드시 성차별주의가 더 낮거나 혹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여성의 경우 HS와 BS간의 상관은 높지만 평균점수는 모두 남성보다 모두 낮았다. 더구나 남성과 여성의 요인구조가 같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BS 점수가 감정온도와 같은 성차별주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별로 중요하게 작용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인 남성들이 젊은 남성에게 비해 HS와 BS간의 상관성이 높다는 것은 성인 남성의 성차별주의가 크지 않다는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여성에 대해 더 양가적인 편견태도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K-ASI의 HS와 BS의 평균차이를 검토한 결과, K-ASI 점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HS

에서의 남녀간의 차이가 BS에서의 남녀 차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구1의 표본을 제외하고 4개 연구에 걸쳐 매우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성차별주의적임을 의미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온정적 성차별주의도 역시 고정관념적 시각으로 여성을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여성들 또한 HS에 비해 BS가 높다 것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실상은 더 은밀하고 교묘한 남성 지배적 논리를 배후에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도 지각됨에 따라 여성들이 이러한 논리에 부지불식간에 동조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BS는 남성 위주의 지배체제를 정당화할 당근에 불과하며, 체제 유지를 위한 체적으로서의 HS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을 포함한 Glick 등(2000)의 문화비교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여성들은 남성의 체제 정당화 논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들은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HS보다는 남성의 보호와 애정이 약속된 BS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체제 정당화 논리에 맞서기보다 자기 방어적 순응을 하게 된 결과는 미래에 더 큰 HS를 자초하는 악순환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한국은 브라질, 스페인, 미국 등과 함께 BS에서의 남녀 성차가 HS에서의 남녀 성차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4개 표본에 걸쳐 BS의 남녀간 성차가 HS의 남녀간 성차보다 더 적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가부장주의 국가 중에 하나이며, UN에서 매년 측정하는 여성권한 지수는 최하위수준인 61위/66개국(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에 머무르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남성 지배적인 사회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역시 HS보다는 BS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5에서는 앞서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역간, 연령간 그리고 대상자(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간 평균차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 지역간 평균차이 분석에서 영남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HS와 BS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 정경아, 2000)의 가정생활 척도에서

서울과 대구 지역간에 나타난 차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과 성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 지역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여성의 체제 정당화 논리에의 순응과정으로 나타났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영남지역의 남성과 여성들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 비해서 HS와 BS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도권 남성과 여성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낮은 HS와 BS를 보였다. 이는 한 사회의 남성의 성차별주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HS와 BS점수도 높아진다는 문화비교 연구(HS의 경우 증가경향을 보이지만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BS의 경우에는 증가의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음)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소수집단들이 다수 집단의 지배 체제를 정당화 하려는 신념들에 적응하게 된다는 Jost와 Banaji(1994)의 체제정당화이론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증거로 보인다. 연구5의 연령에 대한 평균차이분석에서 10대, 20대, 30대/40대 및 50대 이상을 비교한 결과, HS와 BS 모두 50대와 20대간의 차이, 50대와 10대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30대/40대와 20대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10대와 20대간의 차이와 30대/40대-50대 이상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HS와 BS에서의 연령 차이는 30대 이전 세대와 30대 이후 세대간의 차이를 시사하는 것으로 30대 이전 세대들이 30대 이후 세대들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 또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 정경아, 2000)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HS와 BS에서 일반인과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평균차이 비교의 결과 역시 본 연구의 기대와 일치하게 일반인이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HS와 BS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5의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 성차별주의 척도에서 나타난 결과들과도 상당한 일치성을 보이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된 K-ASI가 타당한 척도임을 다시 한번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할 마땅한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고 그동안 서구 문화에서 타당화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해 오던 실정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이론적으

로나 심리측정학적으로 상당한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으며(정진경, 1990), 남녀에 대한 태도는 특정 사회나 문화에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의거하는 바가 크므로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김양희, 정경아, 2000). 이러한 지적은 본 연구의 K-ASI 모형검증과정에서 4개 요인구조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서구와 달리 6개의 요인구조를 가진 모형이 우리 실정에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와 달리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남녀유별(男女有別)을 강조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상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구성요소들을 더 정교하게 구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척도의 개발과 도입은 지금까지 주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만 여겨져 성 편견임을 간과해 왔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개발을 계기로 적대적 성차별주의뿐만 아니라 온정적 성차별주의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남성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 편견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보다 다채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온정적 성차별주의(BS)의 하위요인인 보완적 성역할 분화의 신뢰도가 여타 하위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이는 문항 수집과정에서 문항 원집합을 구성할 당시부터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으로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문항 사례수가 적었다. 이것이 단순히 문항 원집합 구성의 편향에 기인하는 것인지 보완적 성역할 분화에 대한 서구와 우리나라의 개념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현 단계에서 분명치 않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갖는 양가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Glick과 Fiske(1996)의 ASI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질적인 두 가지 신념체계가 개인 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방법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K-ASI와 연령간의 관계가 두 가지 상충된 가설이 검증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표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연구5에서 전국단위 표집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고등학생보다 연령이 낮은 표집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형성시점이 다르다면, 더 낮은 연령의 표집을 통해 대립되는 두 가설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Glick과 Fiske(1996)는 여성들에게서 HS-BS간의 상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여성들의 성차별주의가 그 사회의 문화적 성 규범의 수용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점도 후속 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전국 규모의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만, 표본의 크기 때문에 일부는 상관과 평균차이 점수가 크지 않음에도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지역 간 및 대상자간 몇몇 평균 점수 차이들이 5점 척도 상에서 .1 수준의 작은 차이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은 본 연구 일부 결과가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는 보다 보편적인 남녀관계에 바탕을 두고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성관계나 직장 내 여성리더에 대한 평가, 성희롱 및 강간,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등,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편견을 이해하고 이를 연구하는 데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예컨대, HS와 BS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여성하위 집단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전통적 여성과 비전통적 여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르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HS와 BS의 편견을 보이는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 제반 이슈들에 대해 K-ASI 척도와 기존의 성차별주의 척도(예; MS, NEO, AWS, K-GES 등)를 함께 적용해 봄으로써, K-ASI가 어떤 문제를 더 잘 예언하고 다른 척도들과 구별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의 의식향상과 정부정책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남성들의 성 편견적 태도 또한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 인권의 실태는 열악하며,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기대만큼 충분히 평등적이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노골적이고 표면적인 성차별주의는 크게 줄었다지만, 남녀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고 보면 이러한 변화가 평등적인 의식으로의 대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미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보다 양성 평등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여성에 대해 우호적인 것처럼 위장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앞으로의 여성 편견 연구를 수행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양희, 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23-44.
-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준비중).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 82-92.
- Abrams, D., Viki, G. T., Masser, B., & Bohner,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and stranger rape :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11-125.
- Begany, J. J., & Milburn, M. A. (2002).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exual harassment : Authoritarianism, hostile sexism, and rape myths. *Psychology Men and Masculinity*, 3, 119-126.
- Berscheid, E., & Peplau, L. A. (1983). The emerging science of relationships. In H. H. Kelley, E. Berscheid, A. Christensen, J. H. Harvey, T. L. Huston, G. Levinger, E. McClintock, L. A. Peplau, & D. R. Peterson(Eds.), *Close relationships*(pp. 1-

- 19). New York : W. H. Freeman.
- Bohner, G., & Schwarz, N. (1996). The threat of rape : Its psychological impact on non-victimized women. In D. M. Buss & N. Malamuth(Eds.), *Sex, power, conflict : Evolutionary and feminist perspectives*(pp. 162-175).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Brannon, L. (2005). Gender Stereotypes :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L. Brannon(Ed.), *Gender : Psychological Perspectives*(pp. 159-185). ML : Allyn & Bacon.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of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Campbell, B., Schellenberg, E. G., & Senn, C. Y. (1997). Evaluating measures of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89-102.
- Eagly, A. H., & Mladinic, A. (1989). Gender stereotypes attitudes toward women and 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545-558.
- Eagly, A. H., & Mladinic, A. (1993). Are people prejudices against women? Some answers from research on attitudes, gender stereotypes, and judgments of competence. In W. Str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Vol. 5, pp. 1-35). New York : Wiley.
- Fiske, S. T., Xu, J., Cuddy, A. M., & Glick, P. (1999). (Dis)respecting versus (dis)liking : Status and interdependence predict ambivalent stereotypes of competence and warmth. *Journal of Social Issues, 55*, 473-489.
- Glick, P., & Fiske,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 109-118.
- Glick, P., Fiske, S. T., Mladinic, A., Saiz, J. L., Abrams, D., & Masser, B., et al. (2000). Beyond prejudice as a simple antipathy :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63-775.
- Guttentag, M., & Secord, P. (1983). *Too many women?* Beverly Hills, CA : Sage.
- Jackman, M. R. (1994). *The velvet glove : Paternalism and conflict in gender, class, and race relation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Kilianski, S. (2003). Explaining heterosexual men's attitudes toward women and gay men : The theory of exclusively masculine identity. *Psychology Men and Masculinity, 4*, 37-56.
- Kilianski, S., & Rudman, L. A. (1998). Wanting it both ways : Do women approve of benevolent sexism? *Sex Roles, 39*, 333-352.
- MacDonald, T. K., & Zanna, M. P. (1998). Cross-dimension ambivalence toward social groups : Can ambivalence affect intentions to hire feminis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427-441.
- Masser, B., & Abrams, D. (1999). Contemporary sexism : The relationships among hostility, benevolence, and neo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 503-517.
- McConahay, J. B. (1986). Modern racism, ambivalence, and the Modern Racism scale. In J. F. Dovidio &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 91-125). San Diego : Academic Press.
- Spence, J. T., & Helmreich, R. (1972).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Ms. #153.

- Swim, J. K., Aikin, K. J., Hall, W. S., & Hunter, B. A. (1995). Sexism and racism :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99-214.
- Tavris, C., & Wade, C. (1984). *The longest war*(2nd ed.). San Diego, CA : Harcourt Brace Jovanovich.
- Tougas, F., Brown, R., Beaton, A. M., & Joly, S. (1995). Neo-sexism : Plus ça change, plus c'est parei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842-849.

K C I

부록 1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에 대한 요인분석결과(최대우도법, 사각회전, N=105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요 인					
	경쟁 (HS2)	보호 (BS1)	지배 (HS1)	친밀 (BS3)	적대 (HS3)	보완 (BS2)
요사이 여성의 권익 옹호를 위한 발언은 공평을 넘어서서 지나치다.	.73	-.01	.19	-.02	-.06	.04
여권운동가들은 남성들에게 터무니없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71	.08	.16	-.03	-.03	-.01
여권운동가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식이다.	.62	.01	.11	-.10	.01	.02
공정한 경쟁인데도 지기라도 하면 여성들은 성차별이라고 불평한다.	.59	-.02	.08	-.04	.15	.03
대부분의 여성들은 별 뜻이 없는 말이나 행동조차도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	.53	.01	.02	-.03	.17	.02
여성들은 평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남성 이상의 특별대우를 요구한다.	.52	.00	-.15	-.03	.17	.08
늦은 밤에는 남자가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주어야 한다.	-.04	.69	-.03	-.04	.06	-.04
남자와 여자가 함께 길을 걸을 때 여자를 안전한 인도 쪽으로 걷게 해야 한다.	.06	.67	-.05	-.02	-.08	.06
가벼운 짐일 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보다는 남성이 들어 주어야 한다.	.01	.61	.12	.05	.04	.01
출입 시에 남성은 여성이 먼저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02	.61	.08	-.03	.00	-.06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06	.59	.06	.05	.10	.10
재난을 당했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먼저 구조되어야 한다.	-.05	.51	-.05	-.05	-.06	-.02
신체 상의 위험부담이 큰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08	.50	-.08	-.02	.10	.16
집의 소유주(명의)는 남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06	.02	.82	-.04	-.04	-.01
중요한 뉴스는 여자 아나운서보다 남자 아나운서가 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02	.03	.66	.02	.06	-.06
남자의 권위가 여자보다 큰 가정이 안정적이다.	.08	.07	.63	.01	.08	.12
여성이 주도권을 갖는 남녀 관계는 결국 불행하다.	.05	.08	.62	-.06	.00	.00
여성은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일보다는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일에 더 적합하다.	.01	-.08	.59	-.03	.15	.03
대체로 모임의 리더는 남성이 맡는 것이 좋다.	.17	.00	.55	-.03	.07	.13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02	-.05	.00	-.77	-.01	-.04
남성은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성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	-.02	.01	-.02	-.77	.01	-.17
남성이라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	.06	.06	-.01	-.65	.02	.12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07	.03	.03	-.64	.00	.11
남자는 자신을 믿고 알아주는 여자가 있을 때에만 행복해 질 수 있다.	-.02	.03	.01	-.64	.05	.03
남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가 있는 것이다.	.00	.04	.04	-.57	-.03	.16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러먹는다.	-.04	-.01	-.02	.00	.77	.03
여자는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미모를 이용한다.	-.02	-.01	.09	.07	.66	.10
여성은 성적으로 순진한 척 해서 남성이 매달리게 만든다.	.03	.08	.01	-.07	.60	-.04
많은 여성들은 호감이 있는 듯 행동하다가도 막상 남자가 다가가면 차버리는 식으로 남자를 골탕 먹인다.	.12	-.01	.06	-.10	.53	-.04
여성들은 남자에게 아양을 떨어서 자기 속셈을 채우려 한다.	.11	.01	.22	.00	.51	-.06
여성들은 자신에게 헌신적인 남자가 생기면 그를 구속하려 든다.	.18	.06	.01	-.08	.36	.01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섬세함을 지니고 있다.	.10	-.02	-.03	-.02	.03	.70
남자에 비해 여성은 문화적으로 더 세련된 취향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03	.11	-.09	.00	.00	.46
여성의 선천적인 부드러움은 남성이 따라갈 수 없다.	.03	.05	.09	-.04	.10	.46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07	.05	.16	-.05	-.05	.45
많은 여성들은 남성에게는 거의 없는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	-.21	.04	.07	-.10	.02	.27
고유치	9.76	3.66	1.91	1.78	1.42	1.31
기여량(%) 전체 55.08	27.10	10.16	5.31	4.94	3.94	3.64

HS1 : 지배적 부성주의, HS2 : 경쟁적 성역할 분화, HS3 : 적대적 이성애

BS1 : 보호적 부성주의, BS2 : 보완적 성역할 분화, BS3 : 친밀한 이성애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Ambivalent Sexism Inventory

Sang-Su Ah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i-Sook Kim
Ajou University

Miyoung Ahn
Silla University

Five studies were performed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Ambivalent Sexism Inventory(K-ASI). Total 3491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adults participated in these five studies. Through item analysis,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6 items(18 Hostile and 18 Benevolent Sexism) were selected and finally included in K-ASI. The K-ASI taps 2 positively correlated component of sexism that nevertheless represent opposite evaluative orientations toward women : Hostile Sexism(HS) and Benevolent Sexism(BS). HS and BS are hypothesized to encompass 3 sources of male ambivalence : Paternalism, Gender Differentiation, and Heterosexuality. These five studies also established convergent, discrimina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K-ASI. That is, HS-BS correlations were moderate,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HS scores(controlling for the BS scores) with scores from various other sexism scales were moderate while the correlation between BS scores with scores obtained from these existing scales when controlling for the HS scores were nonsignificantly low, as expected. The HS scale correlates with negative attitudes toward and stereotypes about women, and the BS scale correlates with positive attitudes toward and stereotypes about women. The results of a nation-wide survey(Study 5) demonstrated that males as compared to females, adults than younger students and people in Youngnam area than in other regions showed higher HS and BS scores. The theoretical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two types of sexism and the use of the scale were discussed.

Key words : ambivalent sexism, hostile sexism(HS), benevolent sexism(BS), K-ASI, women, prejudice

원고접수 : 2005년 3월 10일
심사통과 : 2005년 4월 8일